



▲ 올해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 본부 신시옥에 문을 연 유물전시관. (광주일보 자료사진)

◀ 한국토지공사는 찾아가는 메세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사업 등 다양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무안에서 열린 '사랑이 꽂피는 콘서트'에서 김덕수 시뮬레이션과 공연하는 모습.

(한국토지공사 제공)

'찾아가는 콘서트' '미술관 기증' 희망을 나눕니다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1) 메세나 앞장 한국토지공사

지난달 27일 저녁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흥겨운 마당극 공연이 열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심청전'을 각색한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작품 '청아 청아 내 딸 청아'를 관람한 해남군민들은 배우들의 해학 넘치는 대사와 흥겨운 몸짓에 박수를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무대는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하는 '사랑이 꽂피는 콘서트'의 일정 번째 행사였다.

'사랑이 꽂피는 콘서트'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7년 처음 시작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도시 사람들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군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무안군을 비롯, 충남 태안, 경남 하동,

강원 평창, 경기 강화군을 찾아 김덕수 평화나눔

교수

과 함께

한국

토지

공사

과 함께

한국

토지